

주식예탁증권(depositary receipt)이란 무엇인가요

주식예탁증권은 외국 기업이 발행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증권을 말합니다. 외국 주식의 해외 운송이나 언어 장벽, 국가 간 법률 상충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자본시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증권예탁증권(경제팀 참조)의 일종으로 보통 주식예탁증서로도 불립니다.

주식예탁증권의 기원은 금융의 중심지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는 시기인 190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영국의 런던은 산업혁명 이후 산업자본을 조달하는 금융의 중심지였고, 미국 투자자들도 영국 주식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권중개업자들은 선박을 통해 영국 주식을 직접 뉴욕으로 가져와 뉴욕 현지에서 영국 주식을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초 미국 경제가 급성장하고, 금융 중심지로서 런던의 위상이 낮아지자 영국 정부는 영국 주식의 해외 이전은 영국 내에 소재한 명의개서대행기관(registrar)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제했습니다. 그러자 1916년 뉴욕에 소재한 은행들과 증권중개업자들이 영국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미국 투자자들이 계속 영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이게 바로 오늘날 주식예탁증권이라고 불리는 원래 주식의 대체증서(substitute certificates)입니다.

영국 주식의 주권을 뉴욕에 소재하는 은행에 보관시키고, 그 예탁은행이 주식을 잘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과 보관하고 있는 주식을 나중에 돌려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는 영수증 같은 증명서(receipt)를 발행한 후 이 증명서를 미국 내에서 거래하기 시작했던 것이 DR의 유래입니다. DR과 관련된 주권(株券)이 은행에 예탁되어 있고, 이 예탁은행(depositary)이 발행한 증서라는 의미에서 예탁은행증서(depositary receipt)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후 1927년 지금의 JP모간 전신 중 하나인 뉴욕 게런티 트러스트 컴퍼니은행이 런던에 소재한 당대 최고의 백화점인 셀프리지스(Selfridges & Co) 회사의 주식을 기초로 하여 DR을 발행했는데, 이를 계기로 미국 내에서 DR 발행의 틀이 갖춰지고 DR 거래도 활성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